

여수시, 물가 관리 전담체계 구축 나섰다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 TF 구성
섬박람회 대비 물가 관리 체계 구축
바가지 요금·불친절 민원 등 대응
종사자 대상 친절 캠페인·교육 강화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를 꾸려 물가 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해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나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지역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물가 안정 전담팀(TF)은 관광지 주변 숙박·음식업소의 계속된 바가지요금, 불친절 민원에 따른 대책으로 기획됐다.
이에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가 협업체 분기마다 부서별 대책 추진 상황과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회의했다.
이날 전담팀(TF)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에서 최 부시장과 5개 부서장은 매일 실시되고 있는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을 활용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주제로 하는 친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낭만포차 등 숙박·음식업소 종사자 친

절 교육을 확대·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피해 신고 접수 시 행정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공무원별 담당 음식점소를 지정해 직접 방문하여 개선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부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여수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계부서와 해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달 31일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 숙박·음식업소 물가 안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이경기 기자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 13개 지역 3400세대 단수

여수시가 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1일간 관내 42개소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가 실시됨에 따라 일부 지역 단수에 따른 대비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 청소·소독에 이어 점검·보수도 병행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배수지별로 청소를 순차 진행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물탱크가 2개인 배수지는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진행하나, 물탱크가 1개인 일부 배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13개 지역 약 3400세대가 단수될 예정이다.
단수 일정은 △5일(09:00~11:00) 현암도서관 일원 △13일(09:00~11:00) 두암택지지구 일원 △14일(09:00~11:00) 성두·계동·임포마을 일원 △15일(09:00~11:00) 진두·상하동마을 일원 △19일(09:00~12:00) 테코빌리지빌라, 오천동 및 만성리 일원 △21일(09:00~11:00) 자산공원 일원 △22일(09:00~13:00) 돌곡마을 및 구봉중학교 일원 △25일(09:00~11:00)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주택단지 일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단수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비상용 물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등 단수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이순신도서관, 세대 공감·소통 위한 인문학 강연회

여수시이순신도서관은 오는 11월부터 '순에 손잡고 세대를 넘어서'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누구나 공감 가능한 세대 간 격차와 소통 단절의 문제에 대해 명사의 인문학적 해안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강연은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5일 이옥선·김하나·황선우 작가의 '세대를 넘어선 즐거운 북토크' △19일 박준 시인의 '세대와 시간을 횡단하는 마음들' △12월10일 서은국 교수의 '행복, 이제 새로운 눈으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jslib.yeosu.go.kr) 문화 프로그램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회차당 80명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 강연회를 계기로 세대 간 공감대 형성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며 "명사의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깊어지는 가을 정취 속 시민들이 삶에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이순신도서관(061-659-28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한영대학교 화공플랜트산업과 학생들과 지도교수 30여 명은 지난달 31일 광림동에 독거노인 등 3세대에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여수한영대학교 제공

여수한영대 화공플랜트산업과, 연탄 1000장 전달

광림동 독거노인 3세대에

여수한영대학교 화공플랜트산업과 학생들과 지도교수로 이뤄진 사회봉사단 30여 명은 지난달 31일 광림동에 연탄 1000장을 후원했다.
수혜 대상은 광림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으며, 봉사단은 난방 지급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3세대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신광수 지도교수는 "매년 진행하는 연탄 봉사지만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우리의 마음이 전해져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종인 광림동장은 "10월의 마지막 날

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며 고생해주신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연탄 배달은 한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이 지원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1번째 진행돼 오고 있다.
더불어 봉사단은 오는 12월 광주 백혈병협회에 헌혈증서 100여 장을 기부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2024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 내일 흥국체육관에서 열려

'2024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6일 '일과 시민'을 주제로 흥국체육관에서 열린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현장 채용의 기회와 각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여수전남병원과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참여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중장년 등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현장에서는 채용관, 취업 정보관을 통해 기관 정보와 취·창업 상담, 직업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한다.

또한 50여 개의 부스에서는 이력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 이력서 사진 촬영 등 취업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설무대에서는 관내 사회적기업인 '썬쿠키아' 김명신 대표와 '여수야미' 박경하 대표, 테크니션 스킴을 졸업한 여수국가산단 현직자 정현수의 취·창업 성공사례 발표와 취·창업 공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 매월 10만원 생활보조비 지급

여수시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 기자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생활보조비 지급 결정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련됐다.

여수=이경기 기자